



1



2

1 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파주5리 마을회관 앞 마을터널정원
2 파주5리 골목길 블록정원

천혜의 생태자원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파주가 3년째 '파주형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는 운정 신도시가 크게 성장하는 반면, 북부와 원도심은 고령화와 쇠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 고민거리다. 그래서 시는 '마을이 살아야 파주의 미래가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2018년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2019년 7월 읍·면 지역에 '마을살리기팀'을 설치했다. 그해 9월에는 '마을공동체팀'을 구성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29명의 주민이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개 구역(금촌, 문산, 법원, 광탄, 적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했다. 파주시청이 위치한 금촌동이 첫 도시재생 지역으로, 금촌시장 인근의 금정로 22번길의 골목 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됐다. '2021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DMZ 꽃과 빛으로 멋을 만드는 22공동체'

파주,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30년을 그린다

사업을 추진했고, LED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주민들이 금촌시장 일대를 LED 야생화 꽃길로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민이 직접 마을 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마을살리기사업'도 시행해 높은 관심 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에는 16개 읍·면·동에서 학습공간 만들기, 눈 내리는 초리골 축제, 공동 육아 돌봄 등 19건의 공모사업이 진행됐다. 2021년에도 봉일천 숨길 체험코스, 마을방송국(자체 유튜브) 및 마을 카페 조성, 주말 체험농장 운영, 마을 산책길 조성 등 12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총 5억6천만원을 지원해 힘을 보탰다.

그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2020년)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살리기 외에도 파주 곳곳에서 도시재생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은 법원을 대능리와 파주읍 연풍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폐가 철거, 노후 주택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파주시는 아동돌봄 공동체, 청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최중환 파주시장은 "파주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파주만의 공동체 마을과 자연환경,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파주

평화와 상생으로 도약하는

+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수도, 통일 중심도시
지역별 발전을 통한 균형과 상생의 도시
자족 기반과 지속가능한 동력을 갖춘 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배려와 따뜻함이 있는 도시